

클리브랜드박물관 관장실 단상(斷想)

－ 대가(大家) 사이의 초심(初心) －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박물관에서 조상의 숨결과 체취가 깃든 ‘아름다움과의 만남’은 정녕 세월의 흐름을 잊게 한 것인지, 훌쩍 50줄로 접어든 자신을 직시하며 사진을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다”

(왼쪽부터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 서면리 관장, 강우방 교수)

국

립박물관에 몸담은 지 5년째 되던 해인 1980년 4월 하순부터 만년 가량 미국에 머문 적이 있다. 서울에서 그 해 5월 7일 큰애가 태어났고, 열 하루 뒤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역(異域)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다. 1976년 일본에서 대성황을 이룬 '한국미술 5천년'에 이어 동일 주제의 미국 8개 도시 순회전시가 1979년 봄부터 1981년 가을까지,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동부로 이어졌다. 나는 당시 현지관리원의 한사람으로 시카고, 클리브랜드, 보스턴 등 세 도시에 있었는데 내게 있어 클리브랜드 박물관에 대한 추억은 각별하다.

이곳 관장 셔먼 리(Sherman Lee) 박사는 당시 회갑을 넘긴 분으로 20년 넘게 관장직에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 등 동양미술사의 대가로 80대 후반인 지금도 여전히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시 개막 강연에서 그는 일본 문화에 끼친 한국의 영향을 단순히 '대륙문화를 섬나라에 전한 교량(橋梁)'이 아닌 일본 문화를 키운 보모(保姆)로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각인된 양 지워지질 않는다. 동양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각별했는데 그 배려 덕분에 당시 전시 준비 중에 있던 '중국 8대 왕조 회화'를 위해 대여해 온 타처 유물과 동 박물관 소장의 중국 그림 대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관장실 책상 뒤 벽엔 사진에서 보이듯 중국 그림과 서양화가 함께 걸려 있다.

셔먼 리 관장 좌측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연구에서 독자적이며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현 이화여대 강우방(姜友邦) 교수이다. 몇 해 전 박물관을 떠나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국립박물관이 우리 문화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미술사학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국립박물관은 민족문화의 정수(精髓)가 응집된 곳이므로 박물관 종사자는 순수해야 하며 열정으로 불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깊은 지식(智識), 높은 안목(眼目), 따뜻한 애정(愛情), 섬세한 손길' 등이 학예관이 지닐 기본 덕목(德目)임을 주창하며 30년 넘게 이를 일상(日常)의 생활로 보여준 선배(先輩)이다.

사진 속의 순간은 1980년 여름이니 어느새 24년이 흘렀다. '30년 이상 박물관에 머물라'는 대학 은사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하한선(下限線)을 두 해 앞에 두기까지 박물관을 천직(天職)으로, 학문의 산실(産室)로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박물관에서 조상의 숨결과 체취가 깃든 '아름다움과의 만남'은 정녕 세월의 흐름을 잊게 한 것인지, 훌쩍 50줄로 접어든 자신을 직시하며 사진을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다. 이 사진을 대할 때면 초심(初心)의 열의(熱意)와 각오(覺悟) 그리고 싱그러운 젊은 시절의 풋풋한 어떤 힘이 되살아남을 느낀다. 🌈